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구원의 이유"
성경	에베소서 4:11~12
일시	2018년 04월 22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에베소서 4:11~12)

-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요약 자료 ♣

구원의 이유 (에베소서 4:11~12)

1. 유일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 1)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1~5)
- 2)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6)
- 3)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7)

2. 구원의 이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12)

- 1)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2)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3.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 1) 옛사람은 이방인처럼 마음의 허방한 것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엡 4:17-18)
- 2)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니다. (에베소서 4:24)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 오늘 메시지를 나누는 이 시간에... ‘참 하나님이 너무 정확 하시다.’라는 것을 늘 느낀다. 제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가장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이다.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날이 오늘이다.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생일이다. 아시는가? 여러분? 아마 여기 21년 전에 휴스턴에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에 시작했던 그 분들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있으신다. 한 분의 신앙고백이... 또 함께하는 그 분들의 신앙고백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인들을 통해서다. 제가 볼 때는 그 증인들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 진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역사잖은가? 역사는 책에서 보는 역사도 있고 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통해 읽는 역사도 있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인들의 그 고백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제발 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오래오래 사셔서 진짜 우리 후대들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제가 한국에서 서점을 갔었는데...

그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샀다. 그 책이 뭐냐 하면... ‘2050 유엔 보고서’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2050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엔에서 조사보고를 한 내용을 정리한 거다. 지금은 앞으로 그러면 2050년 되려면 몇 년 남았는가? 멀지 않다. 32년 후에...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다. 그러니까 32년...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지 않는가?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 그 30년 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130세로 올라간다고 한다. 120세도 아니다. 이젠, 130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절반도 안 사셨다. ^^ 지금 20대는 앞으로 110년을 살아야 된다. 10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여러분... 이제 20년 밖에 안 살았다. 앞으로 100년은 더 사셔야 된다. ^^ 그러니까 증인들의 고백이 저는... 제 마음을 뜨겁게 한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한테... 생일을 맞이하는 자녀들한테 꼭 가르치는게 세 가지가 있다. 첫 째, 뭘 가르치냐 하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 한다. 모든 인간은 누가 지으시는가?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 할 때에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전도자가 한 말이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말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그 분’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알기를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게 바로 뭐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잖은가? 그 길이... 브리지(BRIDGE)가...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는 빠져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생일을 맞이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늘 저는 주일 날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시다.’라는 것을 확인 한 내용이다. 이게,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뭘 기억하는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든 여러분이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미래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시라.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다. 그냥 ‘소중하다.’라고 제가 말하는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값 주어 사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말이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하시는가? “기뻐하는 자라!” “험시바라!” “빨라라!” 그랬단 말이다. 아시죠? 이사야 62장의 말씀이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 된 말씀... “너를 험시바라 하겠다.” “너를 빨라라 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뿡~ 갔단 말이다. 여러분, 결혼 할 때 뿡~ 가서 결혼 한 것 아닌가? 아, 뿡~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사는가? 저는 제가 볼 땐 뿡~ 간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것 같다. ^^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뿡~ 갔단 말이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결혼 할 만큼...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라.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 제가 늘 고백하는게 그거다. 이 번에 한국 가서 드린 예배의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일산의 영광 교회였다. 그 주일 오후에 강단에 서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말씀드렸다. 성도들에게 말했다. “영광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오면 꼭 가고 있고 있고 싶은 교회가 영광 교회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영광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했다. 저는 만약에 교회를 몰랐다면... 만약에 교회를 통해 전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교회를 뽑는다. ‘목사니까 그렇겠쥬.’ NO!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것 아니다. 저는 진짜 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왜? 불신자 부모였기 때문이다. 형제들에게서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곳은 딱 한 곳... 그게 교회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또, 중직자인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 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다.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 오직 전도와 선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교회... 세계복음화를 할 우리 후대들의 RUTC의 모체로 세워질 그런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게 21년 전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오래 사시라. 증인으로. ‘내가 이 교회 세웠어!’ 하고 어께... 뒷세 부리는 그런 꼴지덩어리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증인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로, 산 증인으로 세워졌으면 전 참 좋겠다. 이걸 서론에 불과하다. 본론은 뭔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거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모든 열방과 만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 되기를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가 나 밖에 모르면 안 된다. 우리 밖에 모르면 안 된다. 어디를 봐야 하나? 237개 국의 나라를 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 가슴에 237개 나라를 품는 그런 그릇이 되셔야 된다. 생각도 237개 나라를 품고 우리의 마음도 237개의 마음을 품고...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가시라. 여러분, 바닷가를 한 번 보시라. 바다를 보시라. 바다를 보면 뭐 누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온갖온갖 그 더러운 오물들을 다 버리는데 바다는 조용하다. 여전히 바다는 유유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마음은 그런 바다 같은... 하나님의 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요상대지만 이게 현재 상태 아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237개 나라... 모든 열방들이 주께 돌아와서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교회 모습을 계속 꿈꾸시라. 계속... 그런 축복을 받으려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경제 부어주실 것이다. 지혜, 지식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껏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다. 그래서 어쨌든 2018년도에 만민을 위해 기치는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 이 안에서 4월 한 달 동안에 주시는 최고의 단어... 어떤 단어가 있는가?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 어디서 우리를 구원 하셨는가? 마귀의 손에서...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어제 저녁에도 아내와 함께 예배소서를 같이 포럼 했다. 포럼 하면서... 저의 구원을 확정했던 말씀은 예배소서에서 찾았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던게 뭐냐하면 예배소서 1장을 다시 보

면서... “찬송하리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구원 하셨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시는가?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다. 그걸 대한항공 타기 전에 그 대기실에 있는 동안에 기도실이 옆에 있더라. 기도실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 넓은 홀에 바닥이 마루가 짝~ 깔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다. 그 곳에서 딱 ‘창조주 하나님...’ 이게 예코가 생기니까 더 좋은거다. 혼자 홀리스피릿 (Holy Spirit)...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그 안에서 딱 혼자 성령충만을 체험했던 말이다. 기도실이 좋더라. 여러분 같 때 가서서 줌... 기도실에 가서서 내 구원을 찬양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데 딱... 오후 딱~ 너 무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 한 30분을 딱 혼자서 신나게 은혜받고 왔다. 그리 기도하고... 교회 생각하며... 함께 세계복음화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번 한 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행복해야 될 단어! ‘구원’이란 단어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이유.’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죄의 배경에서 자라고 결국은 죄 가운데, 저주/재앙 가운데 가야된다. 그 배경이 되는 사단에게서... 그 원죄에서... 그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는 길은 여러길이 있는게 아니다. 종교로 구원 받게 아니다. 돈이나 선행으로 구원 받는거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 받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길은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경 66권의 주제는 하나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 하시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겠다.’ 이게 성경의 주제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로 21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던 사실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원색적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거다. 그래서 구원은 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뭐겠는가? 이 ‘만유’라는 뜻은 뭐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을 만유라고 그런다. ‘만유.’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아버지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단 말이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그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뭘 주셨는가?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단 말이다. ‘은혜’가 뭔가? ‘은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열심등과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 전 은혜를 생각 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산 은혜란 말이다. 우리가 홀런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그 핏값으로 산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자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나? 여러분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다. 학교에서 복음 말하는게 아니다. 병원에서 복음 말하는게 아니다.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게 아니라 이 복음을 말하는 곳이 있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

고 그 성도들이 현장에 흠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유일한 사람들이고 현장을 살릴 유일한 교회란 말이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바로 이 시간 예배란 말이다. 예배. 또 흠어진 여러분의 현장은 살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땀에 가정이 살거고 여러분 땀에 직장이 살거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날 거란 말이다. 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을 예배에서만 누리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란 말이다. 내가 있는 이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저주와 재앙이 꺾이게 하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길 바란다. 그래서 '교회'... 이 말은 보통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 그게 오늘... 어떤이는 사도로 어떤이는 선지자로 어떤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이는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다. 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겠는가? 직분을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되지 않나?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첫 째는 뭐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다. 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 점점, 더욱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냐? 교사가 할 일이 뭐냐? 여러 많은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다. 지금 영이권 예배에서... 스페니쉬권 예배에서... 렘넌트 사역하는 많은 교사들이 헌신하는 헌신의 목적이 뭐냐? 결국 렘넌트들과 다민족들이 그리스도께로 점점점점점 가까이 가도록 돕는 그런 수고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사'라 하고 그래서 '목사'라 하고 그래서 각 직분을 맡긴 거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그리스도께 점점점 더 가까이... 어제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만난 그리스도가 더 어제 보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 믿었던 그걸 기억하는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더 깊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그것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와 만날 때 그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위하여 직분을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다. 그뿐만이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만큼 봉사하게 돼 있다. 그게 섬기게 되는 거다. 무엇으로 봉사하는가?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 또 각 기관이 있는 이유. 이제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와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가 전부 뭐냐? 말씀으로 주의 봉사... 섬기도록. 그럼 뭐 설거지도 하지 말고 뭐 다른 뭐 교회 청소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저는 사실은 교회 청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더라. 뭐 화장실 청소... 뭐 교회 주변 정리하는거. 힘들 수 있다. 만약에 저에게 맡기면 제가 기쁨으로 하겠다. 절 시켜주시라. 정말 아무도 안 하면 제가 다 하겠다. 전 그런 확신이 있다. 저는 교회 청소하는게 너무 기쁘다. 웬지 아시는가?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들이 머무는 이 자리... 앉는 의자... 볼일 보는 화장실... 모든게 다 뭐냐? 성도들이 쓰는 곳이잖은가? 렘넌트들이 사용하는 곳이잖은가? 이런 곳에 청소 한다는게 얼마나 기쁘지... 좀 시켜주시라. 저를. 진짜다. 저는 사실은 청소를 언제부터 했겠는가? 저는 학생때부터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교회 청소를 했다. 교회 청소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다. 모르겠다. 웬지 모르겠다. 한데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계산을 따진다. 물론 돈 주고 사람 사면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누가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 된 내 몸은 누가 닦는가? 다른 사람이 닦아 주는가? 그럼 다른 사람이 닦아 주면 그건 병든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씻어야 된다.

내 교회는 내가 청소하는 거다. 그 일에... 봉사 하는데 왜 자원하는 사람이 없냐는 말이다. 왜 자꾸 돈 얘기 하는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을... 교회에 현금 하는 걸 어디다 쓰냐고요? 진짜 써야 할 때 써야 되잖은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잖은가?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교회에 있다면 그런 말 안 나온다. 그런 말 안 한다.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마디로... '다 하지말고 내가 할게. 날 시켜.' 그런 마음이 있다. 진짜다. 이게... 여러분, 봉사는 것이 복음 안에 있으면 기쁘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힘들다.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을 청소하지 마시라. 교회 봉사하지 마시라.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거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크는 거지 뭐 맨날 교회 와서 그렇게 막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안 크다. 믿음 안 크다. 교회는 일단 뭐가... 딱 오면 뭐가 와야 되는가?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치유를 얻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뭐 할 것 없냐?' 찾은단 말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거리감이 많다. 비록 건물은 멀지만 여러분 마음은 멀면 안 된다. 항상 교회 가고 싶어야 되고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왕이 돼서 궁전에서 그리 호의호식 하는 것 보다 "내가 성전에서 청소하는 문지기로... 문지기로 있는 게 난 너무 기쁘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다. 저도 그렇다. 진짜. 저도 교회에서 좀 늘 같이 있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그렇다. 진짜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디로 오는지 아시는가? 저는? 전 교회로 온다.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하고 싶은 곳이 딱 한군데 생각 날 땐... 꼭 기도 할 때는 교회로 온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주님의 품에 앉아서 막~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다. 저는 그런 교회를...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다르냐? 이게 무슨 말인가? '옛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들이 있다. 에베소서 4장만 봐도... 4장 안에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십가지가 기록 돼 있더라. 제가 그걸 찾아 보면서 짹 짹 놀랐다. '아니 에베소서 옛 사람?' 이게 구원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구원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상처로 아픔으로 있는 분들이 많더라.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만 한 번 여러분이 한 번 보시라.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17절에 옛 사람들은 뭐 하는가?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충명이 어두어져' 있다고 그러다. 그리고 '무지'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고 옛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다. 자신을 '방탕'에 버려둔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한다. 이게 옛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그리고 '씩어져 가는 구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옛 사람이라고 한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28절에 보면 '도독질 하는 사람들'. 그리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옛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안 된다. 옛 사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프다.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겠는가? 역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록이 돼 있다. 자,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파 하는게 정상이다. 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 복음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게 새 사람의 특징이다. 그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그린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그린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가 지체된 사람들'을 보고 새 사람이라 한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가나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29절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친절',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 번 4장에서 한 번 읽어보시라. 자, 그렇다면 이번 한주간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두 가지를 하시라. 두 가지. 첫 째, '집중'하시라. 무엇에 집중 하는가?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라는 말이다. 이 시간을 꼭 만드시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된다. 그러셔야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찬양하며 그리스도께 집중 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집중 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의 십자가'를 그리며 집중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집중 할 수도 있고... 기도수첩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 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그러면 꼭 오는게 있다. 그리스도께 집중한 사람들에게 오는 힘과 행복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걸 뭐하는가? 나누는 포럼을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에 집중하고 받은 은혜를 포럼하라. 이게 이번 주에 제가 결론으로 맺은 말씀이다. 특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다. 어제부터 이번 주 돌아오는 28일까지 미주 램넛트 집중훈련이 있다. 이 집중훈련에 아홉명의 강사가 있고 또 한국에서 온 사람해서 총 한 12명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지역은 열세개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 이 미주의 50개 주 안에는 복음운동 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복음운동 하는 교회 안에서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는 램넛트와 성도들이 참 많다. 그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번에 집중훈련을 한다. 첫 째가 뭐냐하면 '치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서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번에 집중훈련을 하게 된다. 돌아오는 토요일 28일에 휴스턴에 집중훈련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어스틴에서... 오클라호마에서... 달라스에서... 이 남부지역의 네 개 지역에 집중훈련이 있고 그리고 동부, 엘에이... 그 다음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서 집중훈련이 있다. 그리고 워싱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심지어 보스턴 해가지고 전체 한 열세개 지역에서 지금 집중훈련을 한다. 거기에 가는 분들이 메시지만 전달하는게 아니고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교회에 좀 집중하는 시간 갖고 현장을 살릴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번 집중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한 편으론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시애틀을 가는거다. 시애틀에는 교회가 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 강사단들이 모여서 시애틀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참 마음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아, 그 곳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그렇다면 누가 가야 되는가? 제가 가는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앞서 흑암을 결박하고 앞서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사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이 각인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면... 한 목회자가 나온다면... 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러면 시애틀은 살아날 수 있잖은가? 그렇지 않겠는가? 휴스턴은 안디옥 교회 때문에 살았다. 맞는가? 여러분?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 때문에 휴스턴이 소망 있는 곳이 됐단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리스도와 안디옥 교회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단 말이다. 심지어 해외에서 유학을 온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산다. 그런데 그 곳에 만약에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숨을 쉴 수 있단 말이다. 램넛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가 있고 말씀운동 해주는 전도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다. 복음운동 하는 교회도 없고 다락방도 없고 메시지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참 암담하단 말이다. 그럼 그 첫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면 되겠다. 하지만 미국 역사에서... 이 집중훈련이 램넛트들이 지금 있는 그 시애틀에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 지금.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살아나도록... 목회자가 살아나고 램넛트가 살아나고 성도가 힘을 얻고... 그런 집중의 시간이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 포럼하시고... 포럼한 그 내용들이 온 미주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확산 되어 지도록 기도하시라는 거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누리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전도사:	권 예나 전도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